

PEOPLE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전남도, 제주서 고향사랑 실천 홍보

전남도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여해 전국 회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실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도는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 회원 20여명, 제주호남향우회 서귀포시 전남도민회(회장 장은술) 10여 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소개하며 관심을 끌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을 응원하고 알리는 자발적 홍보단으로, 참여자에게는 할인가맹점 혜택, 전남 주요 행사·관광 정보 제공, 이벤트와 체험 기회, 온라인 소통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대부중, 녹색도서관 조성 ‘호응’

조산대학교부속중학교(교장 박충훈)가 지난 2월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존 도서관을 식물이 가득한 ‘녹색 도서관’으로 조성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녹색 도서관에는 수직 정원화 수평 정원이 설치됐고, 홍콩야자, 스킨답서스, 산호수, 아비스, 트란카틀라 등의 공기정화식물 368본을 심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곳곳에 켄자야자, 피어리스, 올리브, 알로카시아, 스킨답서스 등 32개의 분을 비치했다.

식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식물 덕분에 눈이 편하고, 쾌적한 느낌이 든다”, “식물 덕분에 공기가 맑아졌다” 등의 이용 소감을 밝혔다.

새로 단장한 녹색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1학기에 비해 일 평균 70~100명 사이로 급증했고, 2학기부터 생태 환경 교과 연계 수업, 도서관 활용 수업, 원예 동아리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VIP라이온스클럽 개미꽃동산 사랑의식당 후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VIP라이온스클럽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남구 사직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식당에 봉사금 100만원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정찬미 회장과 김종은 전 회장, 채수호 이사, 조미숙 재무 등이 참여했다.

광주VIP라이온스클럽은 지난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의식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2025~2026 회기 슬로건을 ‘참여, 배려, 봉사’로 하나된 변화의 시작’으로 정하고 지난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찬미 회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냈으면 한다”며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생명 구한다는 생각 뿐”...용감한 광주경찰 칭송

광주청 제3기동대 김재화 경사·김신환 순경 선행 노부부 갇힌 주택에 휴탕물 헤치고 진입 구출 성공

광주 경찰관들이 지난달 극한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어르신들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일 186.7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일대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 광주 지역에는 이날 오후 3시 호우주의보가, 오후 7시 30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당시 신안교 일대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광주경찰청 제3기동대 김재화 경사(43)와 김신환

순경(35)은 빗물이 발목까지 차오르자, 저지대 주택가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도했다.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 한 주민이 “80대 노부부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외쳤다. 이후 119 등 외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신고가 폭주하고 있었고 경찰 지원 병력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이 들어찬 탓에 휴탕물을 헤치고, 노부부가 갇힌 주택으로



김재화 경사



김신환 순경

향했다. 부유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김순경은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진입, 노부부를 구출했다.

비가 그친 뒤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던 70대 시각장애인인 고 할머니가 불편한 70대 할머니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촬영해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했다.

해당 주민은 광주경찰청에 해당 영상을 건네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관들의 노고가 알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모습은 경찰청 유튜브에 ‘꼭 전해주고 싶어요. 시민의 진심이 담긴 제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개됐다.

김재화 경사는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을 보고 무섭기도 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항암 보조제 ‘이스카도’ 호남권 공급 착착

하스피케어, (주)메디포레와 파트너십

하스피케어(대표 박혜순·성명진)는 새로워진 유통 체계 속에서 (주)메디포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호남권에 미술도 추출물 제제 이스카도(ISCADOR)의 공급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스카도는 항암 보조제로, 1917년에 개발된 미술도 요법의 역사와 같이하고 있다. 1926년 스위스 정부에 ‘ISCADOR’란 상표가 등록된 이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창적 제조 방식을 통해 생산되며,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스피케어는 메디포레가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다수의 병·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오며 공급망을 갖춘 만큼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호남권 암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항암 보조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스피케어 관계자는 “메디포레와의 파트너십은 국내 핵심 의료 권역에서 이스카도의 지속적이



고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암 환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항암 보조요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으로 우정 다져

스포츠·예술·시민참여 캠페인 통해 교류와 공감대 확산

광주시는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 간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11일 5·18광주민주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달빛동맹 교류행사의 하나로, 양 도시 여성단체가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여성정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 행사는 고광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영숙 회장과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이종선 회장, 활동가 등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교류행사는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고광원 행정부시장 주재 환영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밥심전심’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동참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다졌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로지 이케다’의 개인전을 관람하며 현대예술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스포츠·예술·시민참여 캠페인을 아우르며, 양 도시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나누는 동시에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며 도시 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다.

고광원 행정부시장은 “여성의 연대와 협력은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광주와 대구가 함께 미래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은행-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현장서 홍보부스 운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최은옥)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칙 안내, 이벤트 참여형 홍보, 기념품 및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관람객들에게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보이스피싱360! (의심하Go! 전화하Go! 화인하Go!)’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위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수칙을 알렸다.

김은호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조선간호대, ‘저속노화관리사 양성 과정’ 시행

전국 최초...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 주관

조선간호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8일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속노화관리사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오는 11월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간호대 RISE사업단과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과정은 저속 노화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식단관리, 운동 및 마음 건강까지 다뤄 지역사회 은빛세대(노령인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총하고 따뜻한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저속노화관리사 과정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게 돼 영광이다”며 “이 과정을 통해 조선간호대가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주리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원장은 “이 과정에 대한 노력과 주민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속노화관리사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총 10주 과정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수료자에게는 저속노화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이 발부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광주 광산구가 직영하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태)은 11일 구청 윤상원실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11회 도전! 장애이해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2025 이심전심 페스티벌’ 광주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와 가족, 주민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문화예술축제를인 ‘2025 이심전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인택 동구청장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